

# 구슬내 마을이야기



횡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Hoengseonggun  
Seowonmyeon Okgye2ri  
Village records  
Sewon, Okgye2, Archive

구슬내  
마을이야기  
The story of  
Guseulnae Village

횡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 Hoengseonggun Seowonmyeon Okgye2ri Village records .



## CONTENTS

### 들어가는글

- \* 우리 마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 \* 다음 세대를 위한 횡성 아카이브 시민운동



### 01 서원면 \_\_\_\_\_ 10

- \* 서원면
- \* 숫자로 읽는 마을

- \* 서강윤 이희숙
- \* 서희 김순옥
- \* 이기준 정운순
- \* 이재출 원경례
- \* 정선예
- \* 현진성 김윤정 현시은 현시훈
- \* 옥계리 부녀회

### 02 우리마을 구슬내 \_\_\_\_\_ 16

- \* 이야기가 구슬처럼 흐르는 마을



### 03 역사문화 \_\_\_\_\_ 24

- \* 추억의 교정 옛옥인초등학교
- \* 옥계리 성황당
- \* 전통마을 숲
- \* 동갈나무(떡갈나무)와 이무기 이야기
- \* 마을의 설화

### 05 사진에 담긴 구슬내 마을 \_\_\_\_\_ 100

- \* 사일리
- \* 사절리
- \* 새들마을
- \* 옥계천
- \* 주말 마을장터

### 04 옥계리에 살아요 \_\_\_\_\_ 42

- \* 김명숙
- \* 김순자
- \* 김영동 신용옥
- \* 김영만 이계순
- \* 김영희 권영심
- \* 김재혁 조해분
- \* 김재형 목영옥
- \* 김청수 박영자
- \* 문철환
- \* 박복순

### 06 터의 이름, 마을의 기원 \_\_\_\_\_ 118



## 우리 마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김영동 이장  
옥계2리 구슬내마을

2014년 이른 봄,

25년 동안 삶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2년여를 방황하다 고향으로 귀향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마을과 면사무소, 군청 등과 관계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정착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제야 마을 주민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회적조직인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의 2021 청주문화도시 전국공모사업 '다음 세대 기록활동'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횡성마을기록단의 주민 인터뷰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여 소중한 구슬내 마을기록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구슬내 마을을 선정하여 기록사업을 주관해 주신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과 횡성여성농업인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마을이 품고 있는 옛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살아오신 기억의 경험을 한없이 풀어주신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누어 주신 소중한 기억은 한 권의 책에 차곡차곡 정리하여 마을 주민들께 소중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구슬내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콘텐츠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의 가치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고 미래를 향한 증거로 기억됩니다. 기록해야 남겨지는 마을의 삶과 문화도 소중한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서원면 옥계리 '구슬내 마을기록지' 발간을 시작으로 우리 횡성군 모든 마을마다 공동체 기록문화가 확산되어 문화도시 횡성의 기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Preface

올해 초 마을기록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을의 자랑거리 정도를 찾아 알고자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굴되는 마을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익숙했던 마을의 자연경관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구슬내 마을기록지 탄생을 계기로 우리 마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어린 아이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구슬내 마을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신 횡성마을기록단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을기록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서원면행정복지센터와 문화도시 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신상 횡성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마을의 소중한 기억을 발굴하여 이야기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 기록활동 사업」을 지원해 주신 기록문화창의도시 청주를 기억하겠습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한 횡성의 아카이브 시민운동

김시동  
지역아카이브 기획자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한 평생 살아온 자신의 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첫 걸음은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을은 나와 이웃의 삶이 생산되고 교류하는 장소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되고 일상이 순환하는 기억문화 생태계입니다. 지역 기록자원의 발굴은 마을의 기억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쉽지 않은 전환 시대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은 「모든 시민이 기록가」라는 슬로건을 조직의 지향으로 삼고 2009년부터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입니다. 마을과 마을, 사람과 마을을 잇는 공동체의 기록을 사회적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강원아카이브에서는 기록문화를 핵심 가치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청주의 「2021 다음 세대 기록활동 공모사업」<sup>1)</sup>에 선정되었습니다. 강원아카이브와 횡성 여성농업인센터, 횡성마을기록단은 수차례 기록 마을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서원면 옥계2리 구슬내 마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횡성마을기록단에서는 지난 8월, 서원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기록 설명회와 공동체 문화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록 마을인 옥계2리 구슬내 마을의 옛 옥인초등학교 교정에서는 주말마다 마을 장터가 열립니다. 마을기록단은 장터를 찾아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마을 기록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말장터의 일상을 기록하며 마을 주민과 신뢰적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사일리, 사절리, 새들 마을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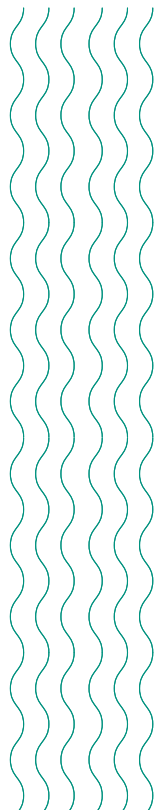
.....  
1) 기록문화창의도시 청주시에  
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2021다음 세대 기록활동 지원  
사업

하여 어르신으로부터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의 나이트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주민의 일상 기억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 만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의미도 그 못지않게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 아쉬움까지도 기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아카이브와 횡성여성농업인센터는 2018년 횡성마을기록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 횡성마을기록단을 구성하여 공동체의 기억과 기록을 발굴하는 주민참여형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횡성 마을기록 활동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록문화 운동입니다. 횡성에서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브 시민운동은 분권과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독립적, 자주적, 주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수집·보존·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을기록과 문화공유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의 기억을 남기는 일 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 복원과 지역재생의 시작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소멸의 시대에서 기록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체의 기억을 발굴, 보존,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법적,행정적]과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횡성의 기록문화 운동이 마을과 마을, 마을과 사람,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회복하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핵심 콘텐츠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횡성의 시민 기록가들은 지역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기억의 길을 찾아서..



# 01 서원면

서원면

숫자로 기록된 서원면

## 구슬내 마을이야기



횡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 서원면

서원면은 법정 6개리(창촌, 금대, 석화, 유현, 압곡, 옥계), 행정 12개리에 총 5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횡성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면. 면적 123.43km<sup>2</sup>, 952세대, 인구 2,287명으로 남자 1,208명, 여자 1,079명이다 [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창촌리이다. 면 소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공근면과 원주시 호저면, 서쪽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청운면, 남쪽으로 원주시 지정면, 북쪽으로 홍천군 남면과 각각 접해있다. 서원면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다. 서울~강릉 간의 국도 6호선, 지방도 409호선을 비롯해 여러 개의 군도가 개설되어 지역 발전의 동맥으로 기능하고 있다.

서원면은 본래 원주군(原州郡)의 고모곡면(古毛曲面)이었으며 1895년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해 횡성군에 편입되었다. 1937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의하여 산현리에 있던 칠봉서원(七峰書院)의 고사적(古事蹟)인 서원사(書院詞)의 이름을 따서 서원면으로 고쳤다. 그리고 리명이 숫자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므로 일리는 산

현리로, 이리를 옥계리로, 삼리를 창촌리로, 사리를 압곡리로, 오리를 금대리로, 육리를 유현리로, 분일리를 매호리로, 분이리를 석화리로 각각 변경했다. 1967년에는 산현리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압곡1리, 산현리, 매호리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였다. 1983년 산현·매호 및 압곡리의 일부가 원주군 호저면(好楮面)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원면의 총면적은 123.48km<sup>2</sup>이며 그중에 밭이 5,042km<sup>2</sup>, 논이 4,876km<sup>2</sup>의 분포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체 면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임야 지대로 84%인 107.039km<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 서원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벼 농사 위주의 농업과 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공시설로는 파출소, 우체국, 보건지소, 농협, 예비군면대가 있다.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 서원면사무소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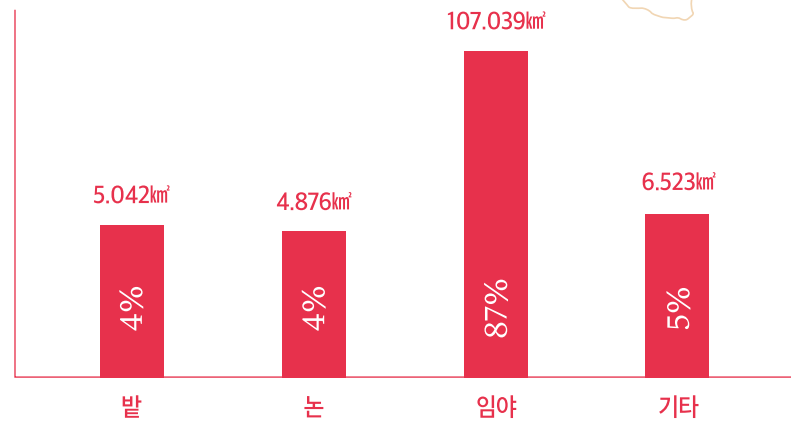
• 서원면행정복지센터2021



## 숫자로 기록된 서원면

\* 총면적 123.38km<sup>2</sup> **횡성군 대비 12.4%** [2021년 10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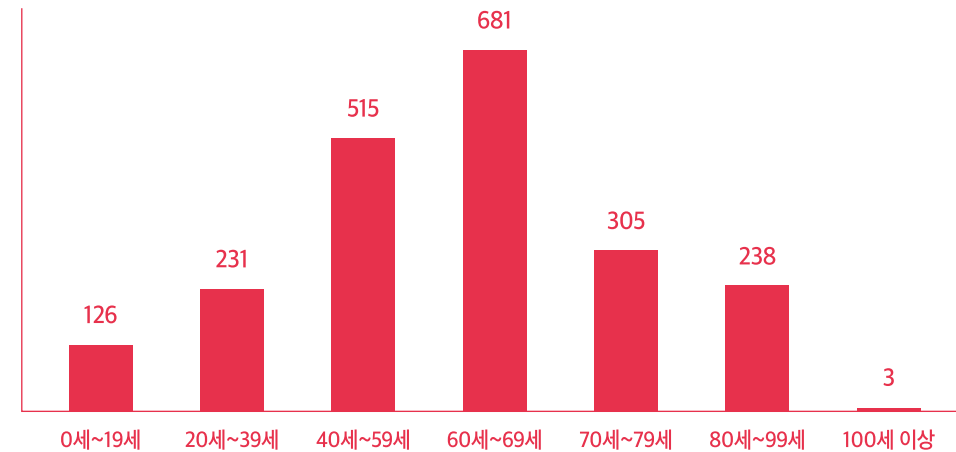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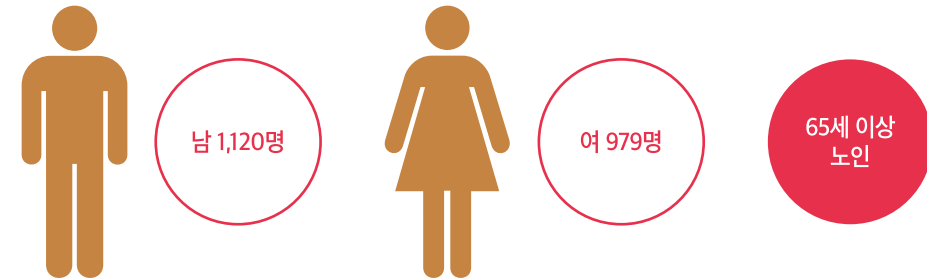
- 법정리 6개
- 행정리 12개
- 반 54개
- 자연부락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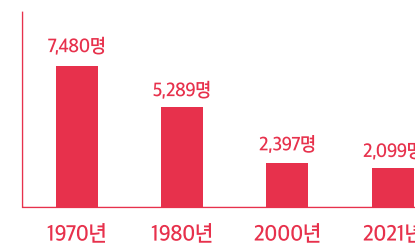
### \* 공공시설

행정복지센터 1	보건지소 1	농협 2	파출소 1	유현치안센터 1	119지역대 1
우체국 1	중학교 1	초등학교 2	유치원[어린이집] 1	작은도서관 1	문화체육센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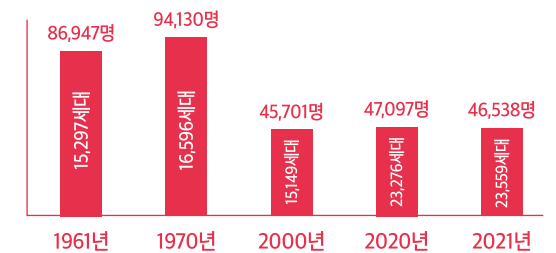
\* 총 1,137세대 / 총인구수 2,099명 [2021년 10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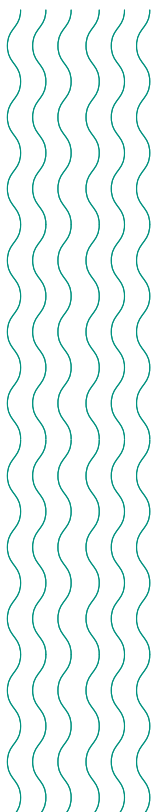
### \* 서원면 인구변화



### \* 횡성군 인구변화







## 02 우리마을 구슬내

## 구슬내 마을이야기



황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 사절리2021



## 구슬이 서말! 옥계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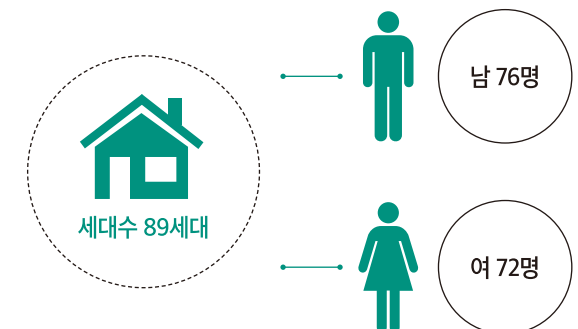
구슬 같은 이야기가 흐르는 마을

옥계[玉溪]리는 구슬 옥[玉]자에 시내 계[溪]자를 쓴다. 개울의 돌 멩이가 구슬처럼 둥글고 물이 맑아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시냇물이 옥빛처럼 흐른다 하여 옥지기라고도 불렀다. 옥계천은 개울보다는 큰 작은 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옛 지명인 이리[二里]를 따라 이리천으로 지명이 정해져 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옥계천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익숙한 이름이다.

옥계리[玉溪里]는 본래 원주군[原州郡]의 고모곡면[古毛曲面]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년]에 황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산, 사절리, 새임을 병합하여 이리[二里]라 하다가, 1937년에 옥계리로 변경했다. 지금은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상징으로 구슬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옥계2리는 옛날에 사일리, 사찌리[사절리를 부르는 말로 부르던 마을로]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옛옥인학교가 있는 쪽은 새들, 강 건너는 사일로 부른다.

옥계 2리 [ 2021년 10월 30일 기준 ]

\* 총인구수 1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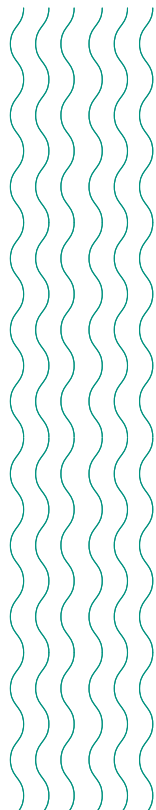




맑고 밝은 구슬같은  
아름다움이 흐르는,  
구슬내마을



• 사일리2021



## 03 역사문화

추억의 교정 옛옥인초등학교

옥계리 성황당

전통 마을숲

동갈나무와 이무기 이야기

마을의 설화

## 구슬내 마을이야기



황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 1950년대 후반 옥인초등학교 초창기 모습

## 365일 웃음소리와 노래가 울려 퍼지던 배움의 요람 옛옥인초등학교

아름다운 마을숲이 품은 학교

옥계리는 옛날부터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솔가지에 이밥만 먹는 동네라고 소문날 정도로 앞내와 들판이 있는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시내가(원주, 황성) 멀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3년 3월, 옥인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옥인초등학교는 마을 주민이 희사한 땅에 지어졌다.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사일리에 있는 공회당에 임시 교실을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터를 닦는 등 자발적으로 교사 건립에 참여했다. 학교에 학생이 가장 많을 때는 전교생이 250여명까지 되었다니 마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365일 웃음소리와 노래가 울려 퍼지던 배움의 요람, 옥인초등학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서원초등학교 옥인분교로 격하되어 운영되다 1994년 폐교되었다. 총 35회 6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옥인초등학교 운동회\_1980년대 후반

2021년부터 옥계2리 마을회에서는 폐교된 옛 학교를 주말장터로 개장하여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통 마을숲을 이용한 숲 해설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육도 진행한다. 손수건, 티셔츠, 파우치, 나무 조각, 조약돌에 곤충 그리기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마을에서는 계절 따라 봄꽃축제, 다슬기축제, 능이버섯축제, 김장축제, 썰매축제 등을 개최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 1950년대 후반 옥인초등학교 초창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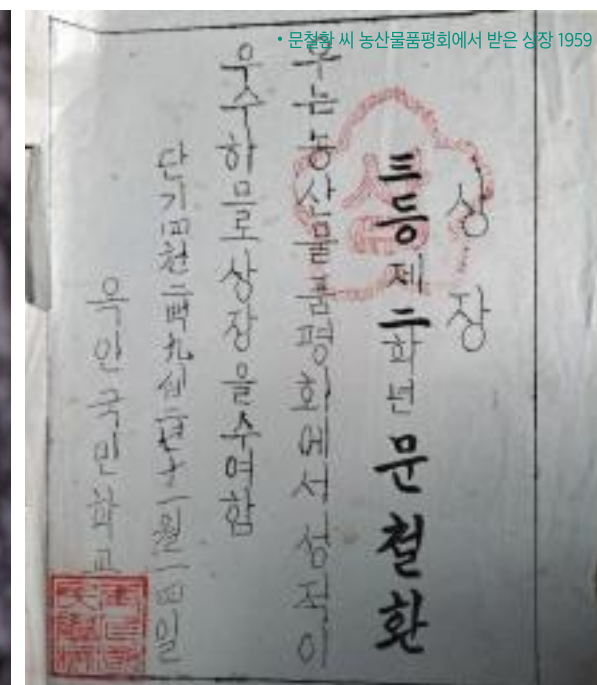
• 옥인초등학교 제15회 졸업기념



• 옥인초등학교 제25회 졸업기념 1980



• 옥인초등학교 제29회 졸업기념 1984



• 문철환 씨 농산물품평회에서 받은 상장 1959



## 당산나무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숲속의 보물 옥계2리 성황당

성황당(서낭당)은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재액(災厄)을 막기 위해 서낭제를 지내는 장소다. '서낭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성황신을 모신 신성한 장소로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돌, 나무, 오색천 등을 놓고 지나 다녔다.

서원에서 원주시 호저면 방향으로 시원하게 뚫린 국도를 따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조성된 전통 마을숲을 만난다. 수백살이 훨씬 넘은 당산 할아버지들이 지키고 있는 마을 숲 입구에는 반듯한 성황당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곳에 성황당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에서는 성황당을 정비하고 이장이 제주가 되어 경건하게 성황제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성황당에는 성황지신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소지 예단과 명주실이 걸려있다.

마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옥계2리 성황당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아주 오래전 어느 해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 성황당 지붕의 이엉이 뒤집히고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초라하게 남아있는 성황당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고 마을의 어느 누구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해 마을의 이장이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다.

마을에 봄이 오고 농사철이 시작되니 여기저기서 소모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그 시절은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였다. 한창 바쁜 농사철에 막걸리 한잔을 하고 돌아가던 새마을 지도자가 바람에 날브러져 있는 보기 흉한 성황당을 보고 “에이 이놈의 서낭당 전 이장 따라 가버렸어!” “이젠 필요 없어!” 하고는 술김에 와락 쓰러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새마을 지도자는 눈에서 씨레질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네사람들은 신성한 성황당을 건드려 그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수근 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새로 선출된 마을 이장의 꿈에서 소나무 숲 서낭당 근처를 지나는데 하얀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장은 왜 거기 앉아 계시는가? 물으니 집을 잃어버려 이렇게 앉아 있다고 슬퍼하는 노인의 꿈을 꾸 후 서낭당을 목조로 새롭게 세우고 지붕도 현대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성황당을 새롭게 단장한 후부터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에게 바치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있다. 성황제에는 마을 노인회장, 이장, 군의원, 면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진행된다. 마을에서는 성황당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전통유산으로 새롭게 복원하고 활용하여 공동체의 단합과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있다.





## 마을을 지키는 천년의 숲 전통 마을숲

옥계2리 새들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 마을숲은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로 형성되어 있다. 전통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숲으로서,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보호, 유지되어 오는 숲을 말한다. 개발과 변화의 과정에서 훼손,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숲을 본래의 자연으로 복원하기 위해 주민들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옥계리 마을숲은 지나온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당산숲이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운을 차단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보호숲으로 마을의 당 제사를 지내는 서낭당이 함께 있다. 백년 이상 된 아름다운 소나무로 조성된 마을숲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쉬고 놀 수 있는 소통의 숲이자 산림욕을 즐기며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치유의 숲이다. 산림청에서는 마을 숲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산림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관 보전림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우람하게, 씩씩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옥계천 동갈나무<sup>[떡갈나무]</sup>와 이무기 이야기

옥계천에는 사일교가 현대식으로 잘 놓여 있다. 옛날에는 해마다 장마 때면 다리가 떠내려가 소나무와 솔가지를 잘라다 썬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다. 다리 아래쪽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속을 드러내 놓고 뿌리의 반을 개울에 내린 상태로 몇백년을 살아오며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나무 이름을 동갈나무, 동가낭구 등 어른들 마음대로 불렀다. 어릴 때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나무에 이무기가 살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장마가 지려고 하면 이무기가 신작로로 나와서 사람들 발길을 막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신작로가 메워지고 길을 높여 놓아 다리에서 내려 다 보이는 형태지만 옛날에는 우람하고 속이 흰히 들여 다 보이는 아주 큰 나무였다.

마을의 젊은 청년이었던 00씨와 몇몇 장정들이 그 이무기를 서로 힘을 합쳐 올가미로 잡아서 어찌 할 줄 몰라 그 동가낭구<sup>[동갈나무]</sup>에 묶어 놓았다. 그러자 올무에서 빠지려고 꼬리로 버둥치자 강물이 하늘높이 솟구치고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결국 끈이 끊어지면서 이무기는 사라지고 지금까지 이무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00씨는 오른손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일도 못하고 타지로 떠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지금은 상류 쪽에 젓소와 한우농장이 늘어나면서 하류인 옥계천이 3급 하천으로 전락되었다. 군에서 오염 발생 지역에 오염 방지법을 강화하면서 하천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천의 명칭도 옥계천에서 이리천으로 바뀌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옥계천이 익숙하다.

# Hoengseonggun Seowonmyeon Okgye2ri

## 마을의 설화 ①

### 이야기 하나 \_ 수리봉[408.6m]

마을 우측에 우뚝 솟아있는 해발 408m의 명산으로 조용한 산행에 적합한 산이다. 옛날 물난리 때 온 마을 들판이 물에 잠겼을 때 이 산만 잠기지 않아 봉우리에 수리가 앉아 물난리를 피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수리봉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인터넷 검색에서는 수래봉으로 나온다.

### 이야기 둘 \_ 누룩<sup>2</sup> 바위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옥계마을에 1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산이 많은 산골이라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부부는 어려워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함이라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부는 깊은 밤나무골 화전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기 위해 골짜기로 내려가 바위에 앉았다. 밥을 먹다 문득 마주 보이는 바위를 보니 누룩을 쌓아놓은 것 같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부부는 바위에 절을 하고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빌고 빌었다. 그 이후 부부는 날을 잡아 신성한 몸가짐으로 새벽이면 바위 밑에 가서 처성을 드리길 몇 해, 드디어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너무 귀하게 기르면 탈이 많이 난다 하여 이름도 천하게 쇠똥이라 불렀다. 하였지만 그 집에서는 금이야 옥이야 길렀다. 지금도 실존해 있는 인물로 누룩바위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 이야기 셋 \_ 독 바위 이야기

마을 동쪽에 위치한 햇골은 마을에서 청정 지역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 햇골은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해가 정면으로 뜨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의 식수원인 취수장이 위치해 있다. 햇골산 정상에는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지면 선명하게 독처럼 보이는 바위 하나가 보인다. 마을에서는 독 바위라 부른다.

아주 먼 옛날에 조물주가 전국의 모든 바위는 금강산으로 모이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나 옥계리에는 그리

① 있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실처럼 재미있게 말할 때 그런 이야기,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 분쇄한 밀이나 쌀, 밀기울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든다.

유명한 바위가 없어 바위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햇골에 살던 마고할멈[마고할미] 태초에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대지모신[大地母神] 성격의 여성거인이 산 아래 창바위와 돌꼬지마을의 바위가 보였다. 그중에 창바위로 불리는 바위 하나를 쑥 뽑아 너를 금강산으로 보내야겠다. 하고 햇골산 정상에 내려놓고 잠시 사일 동네를 향해 오줌을 누었다. 그러다 그만 마고할멈의 가락지가 빠져 오줌 계곡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급기야 마고할멈은 가락지를 찾으려고 계곡을 헤맸다. 금강산에 보낼 바위도 잊고 가락지를 찾다 그만 시간이 지나버렸다. 해서 지금까지 햇골산 정상에는 독을 세워 놓은 것처럼 바위가 남아있고 가락지 찾던 계곡에는 선명하게 물이 흐르고 있다. 햇골에 독바위는 가까워서 보면 굉장히 크다 지금도 홀로 남아 금강산을 바라보며 사시사철 그렇게 서 있다.

### 이야기 넷 \_ 신 지관[地官]<sup>4</sup> 이야기

오래전 이 동네는 뒷골이 원래의 마을이었다. 지금의 살고 있는 마을은 습지로 물과 나무가 무성한 원시 습지였다. 조선 말기 지관[地官]으로 일을 하는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의 뒷골, 옛날 명칭 후곡[後谷]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관[地官] 이라면 글도[한자] 잘 아는 문인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이분과 이천 서 씨가 뒷골에서 제일 먼저 동네를 이루고 살았다고 전해온다. 몇 대를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신 지관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신 지관은 가지고 있던 땅을 동네에 내놓고 자신이 죽으면 잊지 말고 무덤의 벌초나 해달라고 이장과 주민에게 부탁을 하고 죽었다. 마을에서는 약속대로 신 지관의 땅을 경작하여 제사와 벌초를 해주고 그의 땅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동네 기금으로 조성하여 합당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 신 지관이 남긴 땅도 후곡의 물이 점차 줄어들고 습지가 농지와 대지로 바뀌고 대를 이어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곳 서낭당 근처 까지 내려왔다. 신 지관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마을 공동재산이 되어 있어 앞으로도 이 동네가 존재하는 한은 이어지리라 본다.

※ 이야기 해 주신 분 서휘[서강귀]님

마을의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기억을 풀어주신 서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 온 내용을 소상하게 보내주셔서 마을기록의 취지에 맞게 윤문을 했습니다. 마을만이 가진 전설은 공동체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작업의 취지에 맞게 각색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③ 태초에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대지모신[大地母神] 성격의 여성거인

④ 지관 地官 : 풍수風水의 길흉을 고려하여 장지나 택지를 정하는 전문적인 사람

## 구슬내 마을이야기

황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 04 옥계리에 살아

- |            |                     |
|------------|---------------------|
| 1, 김명숙     | 10, 박복순             |
| 2, 김순자     | 11, 서강윤 이희숙         |
| 3, 김영동 신용옥 | 12, 서휘 김순옥          |
| 4, 김영만 이계순 | 13, 이기준 정운순         |
| 5, 김영희 권영심 | 14, 이재출 원경례         |
| 6, 김재혁 조해분 | 15, 정선예             |
| 7, 김재형 목영옥 | 16, 현진성 김윤정 현시은 현시훈 |
| 8, 김청수 박영자 | 17, 옥계리 부녀회         |
| 9, 문철환     |                     |



## 옥계리에서 사일 방앗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김명숙

마을의 먹거리를 만지던 방앗간 집답게 너른 마당을 따라 들어간 김명숙 씨의 안방에 걸린 가족사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1952년, 18살 꽃 같은 나이에 두 살 많은 옥계리 남자와 결혼한 후 평생의 고향으로 살고 있다. 맞선도 안보고 사진 한 장 없이 부모의 말만 듣고 중매로 혼인했다. 슬하에 7남매를 두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옥계마을은 아주 작고 집들은 모두 초가집이었다. 김명숙 씨 댁은 옥계리에서 방앗간 집으로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방앗간 집이라고 부르며 다 안다. 옥계천 옆에서 남편과 함께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방아도 찧고 기름도 짜고 했다. 방앗간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면 방아가 돌아가면서 깨는 갈고, 기름은 짜고,

벼는 찧고 한다. 김명숙 씨 부부는 이후 물레방앗간을 정리하고 정미소를 운영했다. 집 옆에는 당시의 방앗간 터와 흔적이 그대로 남아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게 한다. 사일 방앗간은 벼만 찧는 것이 아니라 떡도 했다. 평소에는 벼만 취급하지만 명절 때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떡 방아를 돌렸다.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생활에 넉넉함도 생기고 살만해지는가 싶던 중에 남편이 손을 다쳤다. 그리고 58세라는 젊은 나이에 농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손을 다친 남편을 대신해 김명숙 씨는 산으로 들로 다니며 딸감 나무를 하면서 바쁘고 힘든 하루 하루를 살았다. 전기가 없던 시절 김명숙 씨는 골짜기 골짜기 안 가본 곳 없이 나무를 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는다.

'50년을 살아온 고향마을 옥계리는 참 인심 좋고 살만한 동네여'



• 김명숙 씨의 환갑잔치에서 동갑내기 친구들과 찍은 기념사진1995



• 옛 사일정미소







## 며느리도 남의 귀한 자식인데 3년째 조식을 해다 주니 내가 고생을 너무 시켜

김순자

옥계리에 살고 있는 김순자 어머니는 올해 93세로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다. 난리 중에 색시들을 광목공장에 보내기위해 다 붙들어 간다고 해서 15살에 시집을 왔다. 고령으로 인해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총기 있게 지난 시절을 얘기하신다. 조부모, 시부모 모두 지금의 집에서 돌아가셨고 남편도 13년 전에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다. 집은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난 갔던 때를 제외하고는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다.

집에서 농사를 크게 지었지만 시어른들의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느라 들 일은 할 새가 없었다. 앞집, 건넌집으로 시동생들이 집을 지어 모여 살고 있다. 아들 부부는 도시에 나가 살다가 비어 있던 옆집에 들어와 살면서 한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도 내 살던 자리가 편하다.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아들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자꾸 쌀을 엮질러서 밥을 못해.  
며느리도 남의 자식인데 3년째 조식을 해다 주니 내가 고생을 너무 시켜,  
애들 집으로 오라지만 아랫방 뒷방 있는 내 자리가 좋지 뭐.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오래 앓지나 말고 죽었으면 좋겠어.”







## 옛 것을 지키며 성장하는 마을을 꿈꾸다

김영동 신용옥 부부

옥계2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영동 씨의 첫 인상은 반짝 반짝 빛나는 눈빛을 갖춘 리더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을 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옥계리의 큰 일꾼이다. 김영동 이장은 옥인초등학교 20회 졸업생으로 서원중학교를 다니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원주로 유학을 나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졸업 후 한국통신(현 kt)에 입사해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며 살다가 퇴직했다.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영동 이장은 자신이 살던 곳을 추억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산 중턱에서 마을을 내려보며 지켜주고 있는 300살 소나무 할아버지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옛 옥인학교 앞 느티나무 숲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둘레길을 조성하고 성황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마을의 옛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동 이장의 어린 시절 옥계리 구슬내 마을은 나무가 많고 가을 풍경이 특히 아름다웠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를 건너면 아름드리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있고 주막과 물레방앗간도 있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받아 올 때 눈에 보이던 마을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다. 옥인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도로도 포장되지 않았고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학교에 빵과 우유급식을 해주기 위한 배달 트럭이 종종 오곤 했는데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가루우유 포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기억이 난다. 수학여행 때 버스를 처음 타본 추억도 떠오른다. 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상상이 가지 않아 아버지에게 '버스가 어떤건가요?' 물어보기도 했다. 춘천의 소양호로 떠났던 수학여행은 인생 최초로 버스를 타는 추억을 만들어주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다. 지금은 전기가 없었던 시절을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았다.



김영동 씨의 어린 시절 경험한 마을의 기억은 이장으로서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옛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김영동 이장은 마을에서 보고 자랐던 우리의 문화를 후손에게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마을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성황당은 정월 초아흐렛날(1월 9일)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주민의 건강과 풍년농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지금은 폐교된 옛옥인초등학교에서 주말마을장터를 주민들과 함께 운영한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마음 맞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즐겁다는 김영동 이장. 요즘은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을 뒷산에 당단풍나무를 심어 5년 뒤 수액을 채취하고 가공해 '메이플시럽'이라는 마을의 특산물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동 이장은 마을의 성장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꿈을 설계하고 있다. 김영동 이장과 함께하는 구슬내 마을의 미래가 기대된다.



살에 원주로 피난 와서 살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시집 올 때는 호저면에서 서원으로 걸어서 왔다. 시집와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까지 모시며 살았다. 옥계리는 지금도 생활권이 원주와 가깝다. 그 당시 원주시내를 가려면 새벽에 밥해 먹고 걸어 나가서 장 보고서 돌아오면 밤이었다. 황성은 산골길로 질러서 가면 40리고 지금의 버스길로 가면 6~70리나 되니 장 보러 가기가 어려웠다.

제대하고 오니 학교가 생기고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많았다.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는 마을 공회당을 임시교실로 사용하여 수업을 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비어 있는 노인정 터가 그 자리다. 이계순 씨는 1991년 마을 부녀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고 김영만 씨 또한 2008년 경로당 회장을 맡아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김영만 부부가 살아온 6~70년대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시대였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 온 것이 이들 부부가 살아온 인생이다.

‘우리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면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다 잘하니까 우리야 뭐 할 얘기가 없어’

## 인생! 뭐 있나 그냥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김영만 이계순 부부

올해 나이 88세인 김영만, 이계순 동갑내기 부부는 오늘도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간다. 김영만 씨의 원래 나이는 88세지만 호적상으로는 86세이니 남들 보다 더 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김해 김씨 안경공파인 김영만 씨는 부산과 파주 장단에서 보낸 군 생활 6년을 제하고 나머지 인생은 이곳 사일리에서 살아온 것이 전부다. 19살에 군 입대를 해서 6년을 복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옛날 마을에는 물레방앗간도 있었다. 옥계천을 흐르는 물을 돌려가지고 방아를 짚었다. 물레방앗간이 없어진 후에 정미소가 생겼고 지금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김영만 씨는 군 입대 전에 19살 동갑내기 아내 이계순 씨와 결혼했다. 인제군 서화에서 살던 아내는 6.25 전쟁으로 17





• 환갑잔치에서 찍은 부친의 사진



• 김영만 씨 군대 시절 1953년



• 김영만 씨 부친 환갑 기념사진





## 그리운 고향, 40년 만에 다시 찾은 종손의 마을

김영희 권영심 부부

김영희씨는 이곳 사절리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안동 김씨 익원공파의 종손이다. 2년 전, 오랜 세월을 이으며 터를 일구어 온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김영희 씨의 집은 서원면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이자 횡성에서도 몇 안 되는 고택이다. 한옥으로 지어진 고택은 김영희 씨의 부친이 태어나던 해에 지었다하니 어림잡아 100년은 되어 보인다. 인터뷰 전날에는 모 케이블방송에서 제작하는 외국인 김장담그기 프로그램을 촬영했다고 한다.

‘옛 집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어서 참 좋아요. 보기가 정말 좋아요’

지금의 주택은 김영희 씨의 조부께서 옥계천에 흐르는 강물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해 와서 튼튼한 한옥을 지었다. 그렇게 정성들여 지은 집은 김영희 씨의 부친께서 잘 관리하며 사시다 2009년도에 돌아가셨다. 가족의 삶을 품고 몇 대를 이어오고 있는 그 집으로 종손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김영희 씨의 부친(김재경)께서는 그 당시만 해도 드물게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10년 정도 다녔다. 그러나 종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으로 내려온 후에는 농사일을 하면서 마을을 살피고 종손으로 역할을 해 왔다. 남 앞에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글을 알고 기록할 수 있는 재능은 마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또한 안동 김씨 익원공파의 종손이자 가문의 회장으로 회칙을 만들고 족보와 문서들도 찾아내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등 보이지않게 노력을 많이 했다.



옥계리 사절리는 언제부터 안동 김씨 집성촌이 형성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멀고 먼 옛날,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온 곳이 이곳 옥계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성촌을 이루며 터를 잡고 살아왔을 것이다. 사절리 오른쪽 산 중턱에는 안동 김씨 익원공파 조상들을 모신 사당과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음력으로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제를 지낸다. 작년까지 매년 지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고약 역병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당은 김영희 씨 아버님,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사당의 관리와 시제 준비 등은 모두 종갓집에서 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종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아랫반, 윗반으로 나누어 제물을 준비하고 시제를 지내고 있다.

김영희 씨는 고향을 떠난지 40년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2년 전에 마을로 돌아왔다. 지금은 폐교된 옥인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서원중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서 학업을 마쳤다. 옥인학교를 다닐 때 만 해도 마을에는 집들도 많았다. 지금도 1년에 한번 씩은 친구들과 동창회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나 소풍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소풍은 앞뜰에 흐르는 옥계천 개울가로 많이 갔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은 운동장 한켠에 술을 걸어 놓고 운동네가 잔치하는 날이었다.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동네 별로 팀을 나누고 부모들도 참여해서 경기를 했다.

김영희, 권영심 부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용문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종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마음이다 고향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기 위해 귀향을 결심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모두 잘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자신이 태어나 살던 곳이 그리워진 것이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 비어있는 집에 대한 그리움도 더해갔다. 결국 용문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 착한 남편, 착한 아내의 방앗간 스토리

### 옥계정미소

김재혁 조해분 부부

젊다! 마을에서 68세는 경로당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막내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정미소를 마주보는 집에서 만난 김재혁 씨는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며 성실한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사절리는 안동 김씨 익원공파의 집성촌으로 후손인 김재혁 씨는 서원면에서 운영되는 하나 밖에 없는 정미소 사장님이다. 석화리에 물안정미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동하는 방앗간은 횡성에서도 몇 안되는 정미소다. 옥계정미소는 1970년대부터 부친이 하던 것을 이어받아 운영해 왔다. 마을마다 있던 시골 정미소는 1990년대 농협이 산물벼 수매가 본격화되면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옥계정미소는 지금도 마을 분들이 필요로 할 때 방아를 돌린다. 정미소가 한창일 때는 참 바쁘다. 농협에서 수매를 안하고 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니 무조건 방아를 찧어서 팔아야만 했다.



개인이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횡성읍에 있는 영신정미소 같은 큰 업체에서 쌀을 구매해 가기도 했다. 예전에는 방앗간에서 찧은 쌀밥이 참 맛있었다. 지금처럼 화학비료를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자연에서 나오는 거름을 주고 했으니 밥맛은 더 좋았다.

‘방아를 찧으면 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쌀로 받아요. 한가마니 기준으로 얼마라는 책정된 만큼의 쌀을 세로 내는 거죠. 그러니 집에 쌀은 계속 생기는 거지’ \_ 김재혁

김재혁 씨 부부는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 둘다 다리의 관절이 안 좋아 수술을 했다. 정미소를 하면서 80kg 이상되는 무거운 가마니를 들고 내리며 너무 힘들게 일했다. 정미소가 한창일 때는 1980년대 중반 쯤 될 것 같다. 11월~12월이 가장 바쁜 시기

인데 하루 종일 방아를 돌리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새벽에 나가는 일상을 한달 이상은 계속해야 했다. 거의 50일은 그렇게 일한 것 같다. 돈 천만원 만져보기 힘든 시절에도 김재혁 씨 가족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나를 얻은 만큼 다른 하나를 잃었는데 몸을 너무 혹사 시킨 것이다.

‘농부들은 논 바닥에다 수확한 벼를 그냥 쌓아놓고 가져가라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서 다 실어와야 하잖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인계한 거니, 갖고 와서 방앗간에 쌓아놓고 집 마당에 쌓아놓고, 아휴~ 그때 들어서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_ 조해분

그때는 농부들이 그냥 논에다가 몇 가마 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믿고 맡겼다. 그냥 그렇게 쌓아 놔으니 가져가라 하면 알아서 가져왔다. 마을은 신뢰의 공동체라는 무언의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삶이다. 벼 가마를 가져다 놓으면 방아 찧는 날에 주인들이 와서 먹을 것과 팔 것들을 구분하게 된다.

김재혁 씨의 아내는 방앗간에 온 주민들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일하다 말고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왔다. 11월의 사절리 방앗간은 마을 주민들의 정보 교류와 만남의 장소였다. 방아를 찧기 시작하면 황덕불에 삼겹살과 양미리를 굽고 술을 마시는 참 재미있는 사람사는 풍경이었다. 쌀 찧는 시간 동안 소주 한잔 하면서 농사 얘기나 마을 얘기도 하면서 1년을 정리해 보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편 김재혁 씨는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아내의 말속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포함되어 있었다. 착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착한 아내였다.

우리네 삶을 지탱해 온 시골정미소는 공동체의 유산이자 근대산업유산이다. 농업 주권의 상징인 벼가 자라고 수확하여 정미소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비로소 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밀이 밀가루가 되어 나오는 것 등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물이 나오는 지를 보여주고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 학습장의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농촌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김재혁 씨의 누님 결혼식 1965



• 김재혁 씨 옥인초등학교 12회 졸업사진



• 김재혁 조해분 부부 결혼식 1982



• 가족사진 1987

## 전쟁 때 피난 다녀온 것 빼고는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김재형 목영옥 부부

올해 82세로 1940년생인 김재형 어르신은 나이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다. 마루에 가화만사성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는 것으로 봐서 가정의 화목함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2살 되던 해에 전쟁이 나면서 충북 보은으로 피난을 갔다 몇 달 만에 돌아왔다. 전쟁 때 피난 다녀온 것 빼고는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김재형 어르신은 옥인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다. 당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나이가 17살, 18살까지 차이가 많이 났다. 제 나이에 들어가는 학생이 드문 시절이었다. 1회 졸업생인 김재형 어르신은 당시 학교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교장은 김필수 선생, 그 다음은 박호단 선생님이었다고 기억한다. 옥인분교 터는 마을 분이 회사를 해서 지은 학교다. 옥인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사일리에 있는 공회당에 모여 임시 교실을 운영했다. 그곳에서 공부방처럼 수업을 하다가 학생수도 늘고 학교가 지어지면서 이사를 갔다.

‘1회 졸업생이 30여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나하고 친구 한명해서 두 명밖에 안 남았어’



학교 옆, 당산숲에 있는 성황당에서는 해마다 제를 지낸다. 이장, 노인회장 등이 제관이 되어 성황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제물로는 백설기와 술을 받아다 쓰는데 지금은 모두 사다가 사용한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앞에 강을 앞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을의 지명 따라 이리천이라고 불렀다. 아래로 내려가면 대산천, 대산계곡이라 부른다.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들과 물싸움도 하고 코를 막고 물속에서 오래참기 같은 놀이도 하고 그랬다. 예전에는 강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많이 넓어졌다.

김재형 어르신은 1965년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서 살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반세기의 삶을 함께 의지하고 견디며 살아온 것이다. 평생을 한 마을에서 같은 성씨의 이웃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큰 위안이 되었다. 많을 때는 서른 두 집까지 살았다. 지금도 대부분이 안동 김씨들이고 타성은 두 집 밖에 없다.



김재형 어르신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다. 자식들에게도 근면한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어르신은 마을에 바람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자꾸 들어와야 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면 좋겠어’

‘어디나 농촌이 다 그렇지만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 전 동네에 젊은 주민이 들어 왔는데 마을의 장래 희망이 보이더라구’



· 옥정옥 어머니 시집오던 날 1961 원주 호저면 옥산리



· 안동 김씨 문중 시제



## 참 열심히 살려고 했어, 영자씨의 한지이야기

김청수 박영자 부부

김청수 씨는 김해 김씨 안경공파 후손이다. 가족이 터 잡고 살아가는 옥계리 사일리는 옛날부터 김해 김씨들이 모여 살던 집성 마을이다. 김청수 씨는 18살 되던 해에 동창생인 15살 박영자 씨와 결혼했다. 마당에서 물 한사발 떠 놓고 혼례를 올렸다. 사진 한 장 남길 수 없던 시절이었다. 박영자 씨의 결혼을 올린 사연은 슬프다. 먹고 살아가기 힘든 형편이라 입이라도 하나 덜려고 친정아버지가 친한 친구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김청수 씨는 열한살 때 6.25전쟁이 나서 피난을 떠날 때 동생 김전수 씨를 업고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다. 전쟁 때 위아래 형제들은 모두 죽고 둘만 겨우 살았다.

김청수, 박영자 부부는 서원에서 한지 만드는 일을 오래 했다. 시집 온지 2~3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제지사업을 시작했다. 1960년대 만 해도 동네 주민들은 닥나무를 많이 심었다.

‘닥나무는 밭둑에 심어놓으면 뽕나무처럼 잘 자랐어, 집집마다 심었지.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없으니 우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닥나무를 실어왔어. 닥나무 값은 가을에 한지로 줬어.’ \_ 박영자

닥나무를 수확해서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닥나무를 찌는 작업이다.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땀나무를 구해 와서 불을 때서 닥나무를 찼다. 구덩이를 파고 건건이를 넣고 쪼개어 올려 삼 찌듯이 닥나무를 찌는데 중간 중간 물을 쥐가면서 쪼야한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고 닥나무가 잘 찌지면 칼로 긁어 내서 걸쭉질을 암반에 몽둥이로 짓이겨 흐물 흐물 해지면 잿물에 삶아서 한지물을 만들었어.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는 돌려서 곱게 한지물을 만들었는데, 한지를 뜨는 것이 어려워. 그것은 기술자들을 데려다 했어. 기술자가 없으면 원주 단구동에 가서 떼오기도 했어.’ \_ 박영자

곱게 뜬 한지는 편편한 철판 위에 널어서 하루 종일 불을 때서 말려야 한다. 잘 말린 한지는 시어머니랑 함께 팔러 다녔는데 어머니는 등에 지고 영자 씨는 머리에 이고 다녔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쉽게 원주에 갈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문막이나 원주로 나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가야 했다. 참 힘들게 살던 시절이다. 황성은 갑천, 홍천, 양평, 평창 등 안 다닌 곳 없이 돌아 다녔다. 자동차도 없는 시절, 한지는 한 권이 20장인데 시어머니는 30권을 지고 영자 씨는 20권을 이고 다녔다. 처음에는 등에 지는 것을 못해서 시어머니가



• 김청수 씨 어머니 팔순잔치



• 박영자 씨세, 풍나무 밭에서 가족들과



• 박영자 씨 동생들과 찍은 사진

고생을 많이 했다. 한지 한 권이 쌀 한말 값인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쌀을 받기도 했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돈으로 받았다

‘돈을 많이 벌기도 했는데 한지 사업하느라 진 빛과 품값을 갚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이 없었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집집마다 창호를 없애고 벽지를 사다 바르고 유리문을 하니 창호지를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시나브로 사업을 접게 됐지.’ \_ 박영자

당시 큰 아들이 원주 학생중학교에 다녔는데 졸업 때 까지 한지를 함께 만들었다.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한지 만드는 것에 매달려야 했다. 노는 날 없이 한지 만드느라 고생들 참 많이했다. 큰아들 영찬씨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간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은데 작년까지 마을 이장을 하면서 폐교된 옥인분교과 이리천을 연계한 경관 개선과 새농촌건설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3대가 함께 한지를 만들었던 거지. 그때 학생들이 견학을 오기도 하고 재미지기도 했는데 다 옛날 이야기야. 아들 나이가 59세 정도 되는데 중학교 때 만든 한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한 권에 4만원씩 팔아. 수십년이 지나도 한지는 망가지지 않아.’ \_ 박영자

‘다시 하고 싶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 간신히 길 만 보고 다녀’

‘참 열심히 살려고 했어, 그래서 다들 나보고 여기서 땅을 나처럼 많이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미친놈 소리도 들었어, 대출받아 논을 40~50마지기 샀지.’ ‘사밭이도 있고 커다란 오토바이도 있어’ \_ 김청수



• 영자 씨는 아직도 한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 맑고 친절한 마을의 첫 인상

문철환

옥인초등학교 9회 졸업생인 문철환 씨의 나이는 안 비밀이다. 아마 젊고 즐겁게 살아가는 당신만의 비결인 것 같다. 현재 서원면 체육공원 관리자로 근무하며 농사를 짓는다. 4대째 터를 지켜오고 있는 문철환 씨는 뒷골에서 태어나 지금은 새들에서 살고 있다. 농부 같지 않은 멋스러운 모자를 쓰고 실한 마늘을 캐고 있는 모습으로 마늘 예찬을 한다. 객토한 땅에 거름을 많이 내서 흙이 속성이 잘 되었다고 자랑하는 문철환 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로부터 마늘 농사 잘 지었다고 포상금도 받았다. 해마다 농업관측센터에서 연락이 온다. 문철환 씨는 아내의 사회 활동과 배움을 적극 지지한다. 아내는 횡성읍에 나가서 하고 싶은 공부와 취미생활을 한다. 아내가 기분 좋으면 자신도 좋다고 하면서 아내의 활동을 응원한다. 이제는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는다.



• 넷째 아들, 김영정 결혼식 날 아침, 사일교 앞에서

##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이다

박복순

올해 87세인 박복순 어머니는 석화리에서 18살에 옆 마을의 19살 옥계리 총각에게 시집왔다. 슬하에 6남매를 두었다. 어머니를 만나는 날 마당에서는 무채를 썰고 있는 큰아들과 수돗가에서 총각 무를 한 구박 씻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겹게 다가온다. 딸이 오면 본격적으로 감정을 하게 된다. 집안에 타일로 마루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 이채롭다. 건축업을 하는 아들이 해 줬다며 아들 자랑을 한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이다. 60년전 시집을 때부터 있던 사랑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박복순 어머니의 인생을 회상하게 한다. 젊어서는 화전도 하고, 나무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한다. 박복순 어머니의 만수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드린다.



• 김관 담그는 밥, 온아들이 함께2021





## 도토리 짚어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

서강운 이희숙 부부

올해 79세인 서강운 씨는 28살에 공근면 학담리 섬골에 갔다가 당시 19살 처녀 이희숙을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 결혼식 날 학담에서 아내를 데리고 올 때 트럭을 대절해서 태워 왔다. 1970년대 그 시절에는 28살이면 노총각이라 했는데 다행히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웃으며 이야기 한다. 서강운 씨는 8살 때 6.25 전쟁이 나면서 충청도 옥천까지 피난을 갔었다. 그때 아버지는 저녁이면 짚신을 삼아서 아침이면 그 신을 신고 피난길을 걸어야 했다. 그 길이 어찌나 고된지 하루에 한 번씩 짚신을 삼아야 신고 걸어갈 수 있었다. 서강운 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아온 덕분에 2,000평의 밭을 사고, 40마지기를 논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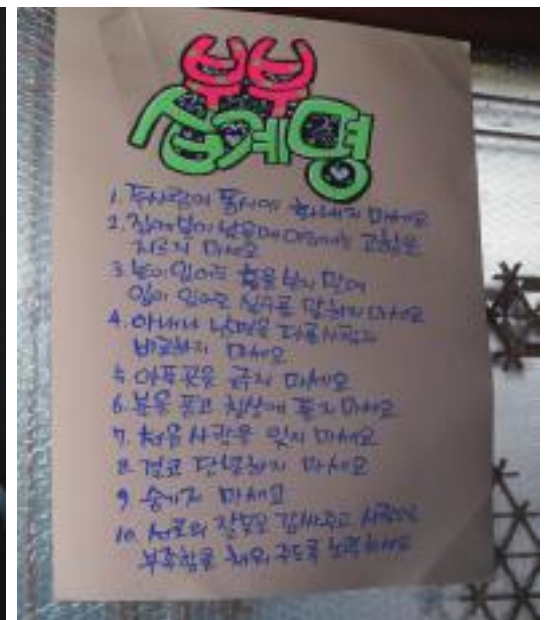
해 넘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자 도토리 주우러 산에 간 아내가 안 온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문 밖 추운 바람 맞으며 도토리 짚어지고 집으로 오는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온다.



## 마을의 이야기 전달자

서희 김순옥 부부

마을의 옛 이야기와 전설을 잘 기억하고 들려주신 서희, 김순옥 부부는 시인과 화가로 살아가는 토박이 옥계 주민이다. 이 마을 출신인 서희님은 국문학을 전공하고 신인문학상과 작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문학강사로 활동하시는 시인이다. 현재는 고향에서 전통 마을숲과 폐교된 옥인학교를 이용한 마을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인의 아내, 김순옥 화가는 서울에서 서원 산골 마을로 시집와 종종 시어른들을 모시며 30년 이상, 서예와 그림을 배워 많은 공모전에서 수상의 경력을 가진 중견작가다. 황성문화원에서 서예, 한글 강사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서예 뿐만 아니라 그림, 핸드페인팅, 핸드메이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돌아온 고향에서 찾은 행복

이기준 정운순 부부

올해 결혼 40주년이 된 이기준, 정운순 부부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강릉, 동해, 원주 등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마을로 돌아왔다. 고향에서는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자 어머니인 93세 김순자 씨를 모시며 유기견과 유기묘를 거두며 살고 있다. 외지에서는 항상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고향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졌다고 한다. 새것으로 고치는 것보다 그대로 두어야 할 것 같은 마음



이 들어 80년 된 집의 상량도 그대로 살려 원래의 모습을 지키고 고쳐가며 산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무엇인가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기준 씨는 서원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운순 씨는 부녀회장으로 옛육인초등학교에서 매주 마다 열리는 마을 장터를 주민들과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등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1년 내내 농사만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나와서 활동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소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정운순 씨는 원주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장을 맡아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은 불우이웃 돕기와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다. 외지에서 그랬듯이 고향에서도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부녀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 내조하고 외조하면서 다정하게 고향을 가꾸며 살고 있다. 어릴 때 걷던 길을 다시 걸으며 고향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한다.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을 때 아랫방과 윗방의 벽을 뚫어 형광등 하나로 밝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고향집으로 연어처럼 찾아 온 행복한 부부다.



## 옥인국민학교의 터를 닦다

이재출 원경례 부부

현재 옥계2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83세의 이재출 씨는 11살까지 서원초등학교를 다녔다. 서원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보자기에 책을 싸서 걸쳐지고 논두렁을 따라 십오리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다. 학교까지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 아침에 보리밥을 먹고 가면 배가 고파 오동[오디]이나 동추삭[산나물]도 뜯어 먹고 가다가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출 씨는 옥계초등학교 졸업생은 아니지만 마을의 학교를 위해 터를 닦았다. 서원초등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개교할 학교의 터를 닦고 나무도 심어 옥계초등학교를 지었다. 옥인초등학교가 개교할 당시에는 가구수가 많아 학생들이 많을 때는 250여명이나 되었다.

그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쌀이 없어 쌀밥 대신 화전을 부쳐 먹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를 보급해주면서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 올해 76세의 아내 원경례 씨는 원주에서 시집왔다. 이재출

씨와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웠다. 아이를 더 낳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럿이 사는 것이 하도 고될 것 같아서 셋만 낳았다고 한다.

옥계리에는 능이버섯이 많이 생산되어 해마다 능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송이보다 더 귀하고 좋다는 능이가 한창일 무렵 찾아뵈어 자연스레 능이버섯 얘기가 나왔다. 능이는 많이땀냐고 물으니 정작 마을 주민들은 나이가 많아 산에 오를 기력도 없고, 농사일이 바빠서 산에 오를 틈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능이를 채취해 간다며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 낮에는 힘들어 울고, 밤에는 슬퍼서 울었다

정선예

가냘픈 양 어깨에 삶을 짊어지고 이겨내며 살아온 억척 같은 여인, 올해 72세인 정선예 씨의 첫 인상이 다. 논두렁, 밭두렁에 하루 15개씩 농약통을 지고 약을 치며 농사를 지어왔다. 13년 전부터 양쪽 어깨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몇 년 전에는 머리 수술도 했다. 정선예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큰아버지 댁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시집왔다. 큰아버지는 친딸처럼 키운 조카를 시집 보내고 나서 10년 동안 대문을 열어놓고 잤다고 하니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큰집에는 밥하는 할머니, 심부름하는 사람까지 두고 살았으니 무엇하나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선예 씨의 시집살이는 너무나 힘들었다. 아이를 갖고서도 눈에 나가 모내기를 해야 했다. 부른 배가 논 바닥에 닿을 정도였다. 가기 싫어도 일꾼이 모자라서 가야만 했다. 모를 심어본 적도, 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니 몇 줄 심지도 못한 상태에서 줄이 넘어가고 또 못 심어서 줄이 넘어가고 그랬다. 낮에는 일 못 한다고 혼나고 밤에는 창피하다고 혼나고, 맨날 울었다. 큰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다 시집을 오니 낮에는 힘들어 울고, 밤에는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다.

‘고생이라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참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처음 시집와서는 큰댁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다가 박대통령 시절에 초가집을 개량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마침 시집을 때 가져온 패물들을 다 팔아서 헌집을 뜯어내고 새로 지었다. 선예 씨는 몸이 아프기 전에 부녀회 총무 일도 열심히 했다. 당시 부녀회에서는 마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병을 수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크고 작은 마을 행사나 군 단위 행사도 마을 부녀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다.

‘다, 부녀회 몫이었어요’



• 친구와 함께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찍은 사진 1960년대 중반



• 서울에식장에서 열린 결혼식 1970 원주

요즘은 서원면 복지회관으로 건강춤 배우러 다닌다.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에서 버스가 와서 태워간다. 요즘은 카메라맨들 두세 명이 와서 매일 찍어가기도 한다. 복지회관에서 춤도 배우고 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즐거워진다.

‘동네 분들하고 하루 하루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서로 도움주고, 도움 받고, 그거면 만족해,  
모두가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웃사촌 인거죠’



• 서원면다문화간지



## 마을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된 귀촌 가족 미래의 삶을 기억하는 가족의 터전

현진성, 김윤정, 현시은, 현시훈

현진성, 김윤정 부부는 2014년 3월 지인의 소개로 구슬내 마을의 집을 소개받고 이사 올 때까지 살아 갈 집이 너무 궁금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달락 거렸다. 오래된 시골집이다 보니 손볼 곳도 많았지만 처음 마련한 집인데다 부부의 취향을 저격한 앞마당과 뒷마당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마을의 초입에 있는 느티나무 숲에 반해서 원주에서 서원 오는 길이 멀지 않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시골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 주변에서의 걱정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주변 지인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시골에서 살아보라는 시골살이 예찬론자가 되었다.

시골에서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자마자 임신을 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초고령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 10여년이 되어 가는데 새로 이사 온 새댁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니 마을 어른들이 모두 좋아하시고 백일이나 돌에 떡을 돌리면 자기 손주 마냥 예뻐해 주셨다. 그 이후로 두 살 터울의 둘째를 낳고나니 딸, 아들 낳아서 기특하다고 터가 좋으니 아이들이 똑똑하게 잘 자랄 거라는 덕담을 너도 나도 해주셨다. 마을 어른들의 덕담 덕분인지 아이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남편 현진성씨는 문막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김윤정씨는 첫째 아이 낳고 나서 서원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다. 그러나 둘째를 임신하면서 다시 육아의 길로 돌아왔다. 첫째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시골에서의 아이 키우기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변화하는 육아와 교육의 트렌드에는 한참을 뒤떨어져 있어 애들을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지 윤정 씨도 고민이 많았다. 특히 마을에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아이의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런 이유로 윤정 씨는 첫째가 다섯 살, 둘째가 세살이 되는 해부터 마을 엄마들을 모집해 공동 육아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누군가의 결핍이 마을에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모든 엄마들의 공통의 관심사였다.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기니 너도나도 모여들어 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참여하는 엄마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윤정 씨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귀촌한 주민이자 마을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필요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서원면문화복지센터와 매봉작은도서관 관리자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윤정 씨는 올해, 횡성 마을기록학교에 다니면서 마을기록단과 함께 옥계리 구슬내 마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자연경관을 기록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옥계2리 구슬내 마을의 과거에는 현진성, 김윤정 부부가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현재와 미래에는 그녀의 가족[현진성, 김윤정, 현시은, 현시훈]이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꿈과 희망의 터전이 될 것이다.



##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정신으로 뭉친 여성조직

옥계2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는 1970년 잘살기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한국전쟁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은 한국은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마을의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부녀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였다. 부녀자로 구성된 새마을부녀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돕기 활동, 공동취사, 공동경작, 절미저축, 금주운동, 구판장, 재활용품 수거 및 에너지 절약 운동 등의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도 지역의 가장 기초 행정구역인 리·통 단위 까지 구성된 단체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조직이다.

### 새마을부녀회 중앙회연합회 회칙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에서 부녀회가 없으면 앙꼬없는 봉어빵이라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 부녀회의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만큼 지난 시대, 부녀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녀들이 기억의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시대였다.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농사일도 해야 하는 현실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갖고 1인 다역을 소화해 낸 새마을부녀회와 부녀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옥계2리의 경우 1980년대 초 우영옥 1대 부녀회장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16대 새마을 부녀회장까지 만나 보았다. 부녀회장 모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역대 부녀회장 중 가장 나이가 많은 6대 부녀회장 이계순(88세)



씨는 본인이 회장을 맡았을 당시는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았다고 하며 이희숙 7대 부녀회장을 가르키며 많은 일을 했다고 기억한다. 부녀회를 이끌어 온 박영자, 이희숙, 김양섭 회장을 비롯한 총무, 부녀회원들은 거의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부녀회 자금이 없어서 마을행사나 동네부역이 있으면 부녀회가 앞장서서 김치도 하고 쌀도 모아서 밥상을 차리는 일을 도맡아 했다.

다리가 끊어졌을 때도 부녀회가 앞장서서 일꾼들을 챙겼고, 면 단위나 군 단위 축제나 행사 때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밥장사를 했다. 면에서 나물축제를 할 때나 군의 태풍문화제[현재 횡성한우축제] 기간에도 쌀과 김치 등을 모아 면민들을 위한 밥상을 차린 일들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 부녀회장을 맡지는 않았지만 부녀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무들도 한마음이 되어 활동해 온 부녀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마을의 주민 조직인 부녀회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건강하 옥계리 공동체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2018년 부녀회장을 지낸 김타관 회장은 김영찬 전 이장과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일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먹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시 때때로 밥을 해드린 일을 먼저 떠올리는 김타관 전 부녀회장. 여기저기 몸은 아프지만 능이를 따러 산에 가야한다며 바쁜 몸을 추스르는 중에도 커피 한잔을 내주시는 모습에서 활동 당시의 부녀회장이 그려진다.

마을에서 만난 전임 부녀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 밥을 하려면 쌀과 김치를 걸으러 다녔던 시절이었다'며 부녀회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다고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면 단위, 군 단위 행사의 봉사 활동에도 많이 참여한다. 또한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부녀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부녀회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녀회의 모습에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엿본다. 옥계2리 구슬내 마을에서 매주 진행되는 주말장터에도 정운순 새마을 부녀회장과 회원들은 장터를 지키며 주민들의 단합과 소득향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옥계2리의 활기차고 슬기로운 농촌 생활을 응원한다.



## 05 사진에 담긴 구슬내마을

사일리

사절리

새들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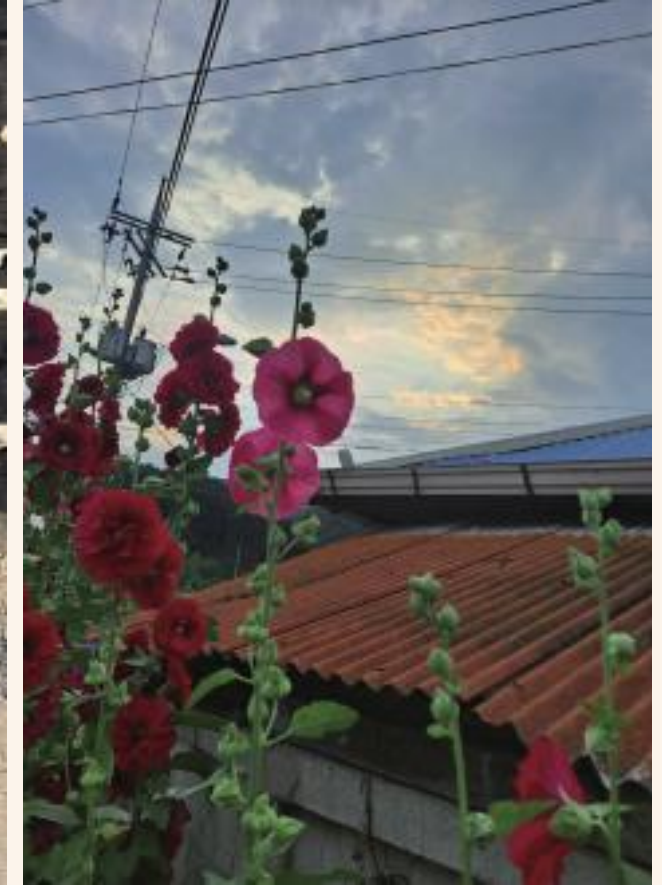
옥계천

주말 마을장터

## 구슬내 마을이야기



횡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주말장터



## 땅의 이름을 찾아서

ㄱ

**거릿대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건너땀 [마을]** 옥계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내 건너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ㄴ

**논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ㄷ

**뿔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마을 앞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마을이 골 앞에 있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ㅁ

**명맥바우 [바위]** 사일에 있는 바위로, 명매기가 새끼를 많이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ㅂ

**방개미골 [골]** 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방씨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사절리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틀골 [골]** 솔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굴이 있는데, 일제 때 공출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골에서 베를 찢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복박골 [골]** 햇골에 있는 골짜기로, 복바위라고 여기는 바위 두 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ㅅ

**사일 [마을]** 옥계2리 1,2,3반을 아우르는 마을로, 예전에는 백로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일', '조곡'이라고도 한다.

**사절리(沙節里) [마을]** ① 옥계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냇가에 모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마을 뒤편 골프장 자리에 절이 있었다 하여 사절리로 불렀다고도 한다.

**새들 [마을]** 옥계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개척이 다른 마을에 비해 늦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일리의 건너편으로 옛 옥인분교가 있는 마을이다.

**새일 [마을]** 사일

**서우네미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지기 [들]** 사일에 있는 들로, 예전에 논이 아니었을 때 소를 풀어 놓고 풀을 먹이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송골 [골]** 사절리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①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송곳처럼 골이 뾰족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송골과 작은송골이 있다.

**수리봉 [산]** 사일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다른 곳은 모두 물에 잠겼으나, 이 산은 수리가 앓을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ㅇ

**앞들 [들]** 사절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킨다.

**양지땀[마을]** 옥계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리천[하천]** 서원면 유현리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섬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섬강의 제1지류이다. 옥계천으로 불렀다.

ㅈ

**조곡[鳥谷] [마을]** 사일

**지루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르마재[고개]** 사일에서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다둔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르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앞들 [들]** 새들에 있는 들로, 마을 앞에 있는 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ㅋ

**큰참나무골 [바위]**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ㅍ

**평풍바우 [바위]** 사일에 있는 바위로,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풀베세운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풀이 많아서 예전에 풀을 베어세워 말리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ㅎ

**햇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해가 정면으로 뜨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구슬내 마을이야기 The story of Guseulnae Village

횡성군 서원면  
옥계2리 마을기록

발행처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발행인 김시동  
발행일 2021. 12. 1


기획 김시동  
편집위원 권명옥, 김윤정, 이미숙, 한영미  
공동저자 권명옥, 김윤정, 김시동, 이미숙, 한영미, 허행란, 황태곤  
협력기관 (사)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횡성마을기록단

디자인 디자인모드니  
그림 권명옥

※ 표지사진 설명 : 1950년대 후반, 옥인초등학교 초창기 모습

주최  **청주시**  
CHEONGJU CITY

주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수행기관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이 책은 2021 청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